



女行

여자 여행

Issue
No. 4

기다림 한스폰
힐링 한모금
후쿠오카편



기 다 름 한 스 폰 , 힐 링 한 모 금
FUKUOKA

1박 2일



1일차
야쿠인



2일차
하카타/텐진

1 일차



* 인천 국제공항

완연한 가을의 끝자락에 우리는 출장을 가장한 후쿠오카 여행을 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은 언제나처럼 우릴 반갑게 맞아주었다. 비행기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약간의 긴장감과 설레임 가득한 표정으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우리의 목적지는 후쿠오카이다. 후쿠오카야 말로 오사카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여행지가 아니던가. 온천여행으로는 후쿠오카만한 곳이 없다는 걸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우리의 목적지는 온천냄새는 구경할 수도 없는 후쿠오카의 도심지가 되겠다. 잠시 콧바람을 쐬러 가는 기분을 장착하고 1시간 10분의 비행에 몸을 실었다.





ゆっくりボタン
웃쿠리 버튼

후쿠오카는 공항과 도심이 인접해있어 일본의 어마 무시한 택시비는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도 공항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다.

택시를 타자마자 눈에 띈 건 이 녹색 팻말이었다. <웃쿠리 버튼>. 버튼을 누르면 택시기사님께 말하지 않아도 속도를 줄여 지금보다 더욱 안전하게 운전을 해주는 버튼이다.

뭔가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일본다운 발상 같았다.

작은 것 하나에도 서로의 기분을 신경 쓰는 문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배려 받는 기분이 들었다.

천천히 운전을 원하시는 분은 버튼을 눌러 주세요.





* 마루탄 텐진점

후쿠오카에서의 첫 식사는 호텔 근처의 <마루탄>이라는 탄탄멘 가게로 정했다. 텐진 중심부에 위치해있는 것치고 저렴한 가격이 맘에 들었다. 후쿠오카의 라멘집이라고 하면 <이치란 라멘>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곳 마루탄은 아직 여행객자에 소개되지 않은 현지인 추천 최고의 라멘집이라고 한다. 기존 라멘의 고기나 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채소만으로 국물을 우려낸 일종의 퓨전 라멘이라고 하여 라멘계의 이단아라 불리우고 거기에 맛과 가격까지 합리적이다.

첫 식사이니만큼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에 들어섰다. 마루탄의 탄탄멘은 매운 단계와 토픽 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3단계와 신세계 단계, 그리고 탄탄멘의 영원한 친구 교자를 주문했다. 비행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만 같은 진한 매운맛이 취향저격이다. 든든한 첫 식사를 했으니 기운내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겠다.

첫 식사의 만족감이 여행의 기분을 좌우한다.

마루탄
まるたん



* 야쿠인 거리

차가운 바람을 뒤로하고 온 이곳의 날씨는
강렬한 햇살에 눈이 부실 만큼 따뜻했다.

여행의 8할은 날씨의 기분이다.

햇살이 좋으니 일상의 소소한 모습들마저
한 폭의 그림으로 보일 수밖에.



두 발자국.

야쿠인 공원 薬院公園

이번 여행의 이동 수단은 튼튼한 두 다리이다.
여행 중 호텔과 공항을 오고 갈 때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걷다가 만나는 공원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미끄럼틀을 왔다 갔다 하며 놀고 있는 어린아이와 그것을 지그시 바라보는 엄마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남성이 이 공원을 즐기는 전부였다.
그런 그들 사이로 살며시 발을 옮겼다.

이 공원에서의 시간은 매우 인상적으로 남아있다.
공원에 머물고 있는 우리 다섯은 서로의 존재를 알아차렸지만 힐끔힐끔 경계의 눈빛만 보인 채 이내 각자의 시간을 보냈다. 마치 적정거리 이상을 유지하며 각자의 세상 속에 있는 느낌이었다.
이 매력적인 장면을 기억에 남기고 싶어 잠시 한 쪽 귀에 이어폰을 꽂았다.

*It's shaking the sky,
and I'm following lightning
Can you see me?
I'm shining*

- BGM : Years & Years <Shin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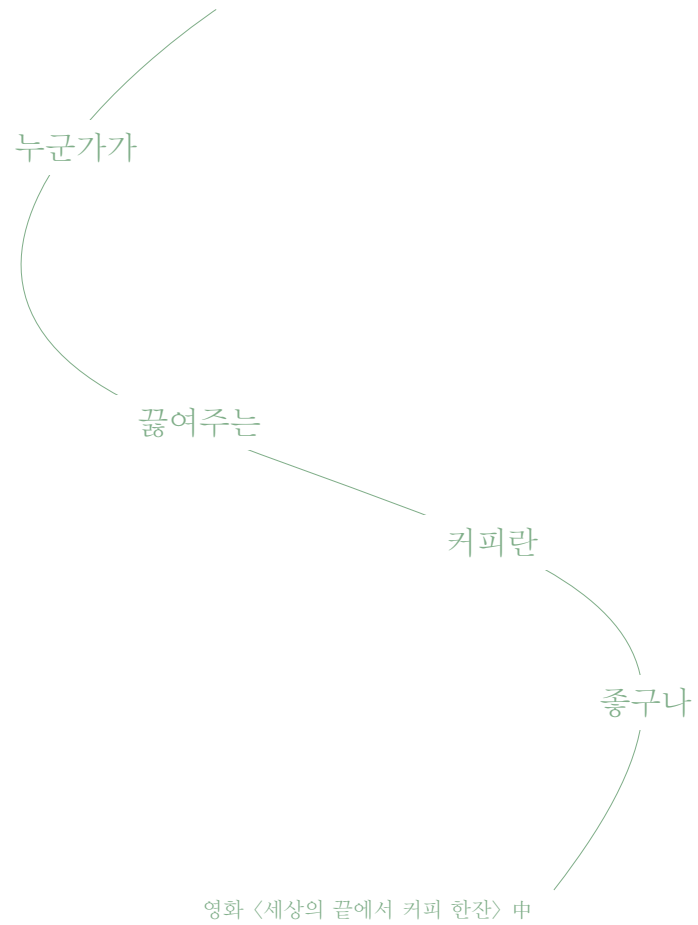
‘이케맨(イケメン)~ 이케맨(イケメン)~’ 하며 찾아다녔던 일본의 미남은 사실 카페 ‘아베키’의 사장님이지 않을까.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커피 내리기에 열중하는 흰옷을 입은 남자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곳이 바로 인스타그램의 핫플레이스<아베키>이다.

약간은 무심한 듯한 아베키 상의 표정과 지나치게 조용한 카페 분위기에 이곳의 치즈케이크와 커피를 맛본다면 다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클래식한 커피, 농후한 치즈 케이크 그리고 평화로움을 넘어선 나른함

아
베
키
아
베
키



커피 한 잔이
가져다 주는
해방감이란!
!



| 아베키(Abeki) | 야쿠인역(薬院駅) >> 도보 8분





2019년 11월의 밤
후쿠오카는 크리스마스 준비로 한창이다.
그것은 밤이 되어서야 눈치챌 수 있었다.
캐롤은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크리스마스이브 마냥

달빛 아래 총총



츠크네 스탠다드

ツクネ
スタンダード

1박 2일의 짧은 일정.

첫날의 밤만은 반드시 특별해야 했다.

츠크네 스탠다드는 넓은 텐진의 거리 한켠 작은 골목에 위치해있다.

밀실로 향하는 듯한 입구가 인상적이다.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호탕한 직원들의 인사 소리와 망원동 어느 가게를 연상케하는 내부 인테리어, 하나하나 정성스레 담아낸 완자 요리.

오늘 하루 하염없이 걸었던 우리에게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 같았다.

이런 보상이라면 내일도 힘 닿는데까지 걸어주지!

곳
곳
에
작
은
배
려
들
이
깃
들
어
있
는
곳



| 츠쿠네 스탠다드 | 텐진역(天神駅) >> 도보 8분



여긴 정말로 중요한 곳이야
 자리에 앉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드라마<후쿠오카 연애백서:손잡이의 거리>中



세상 모든 골목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러 나온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과
 아직은 덜 갠 듯한 골목의 냄새가 만나
 그 마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것 같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상쾌하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 하카타역(博多駅)

다섯 발자국.

잠시 잊고 있었다. 아, 맞아! 출장이었지.
아침 공기를 만끽하며 하카타 역으로 향했다.
숙소가 있는 텐진 쪽에서 15~20분 정도 걸으면 하카타 역이 나온다.
텐진에서 하카타 방향으로 걸어오는 길은 이른 시간부터 공사로 한창이었다.
아침 뉴스에서 보니 후쿠오카의 중심지인 이곳 하카타-텐진을 관광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후쿠오카 시에서 낙후된 곳들을 정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들을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하카타 역에 도착하니 가로수는 온통 빨갭게 물들어 있었고 밤새 반짝이던
일루미네이션 정비에 한창이었다. 작은 변화들로 꿈틀거리는

하카타 역에도 가을이 찾아왔다.





| 키노쿠니야 서점(紀伊國屋書店) | 하카타역(博多駅) >> 하카타 버스터미널 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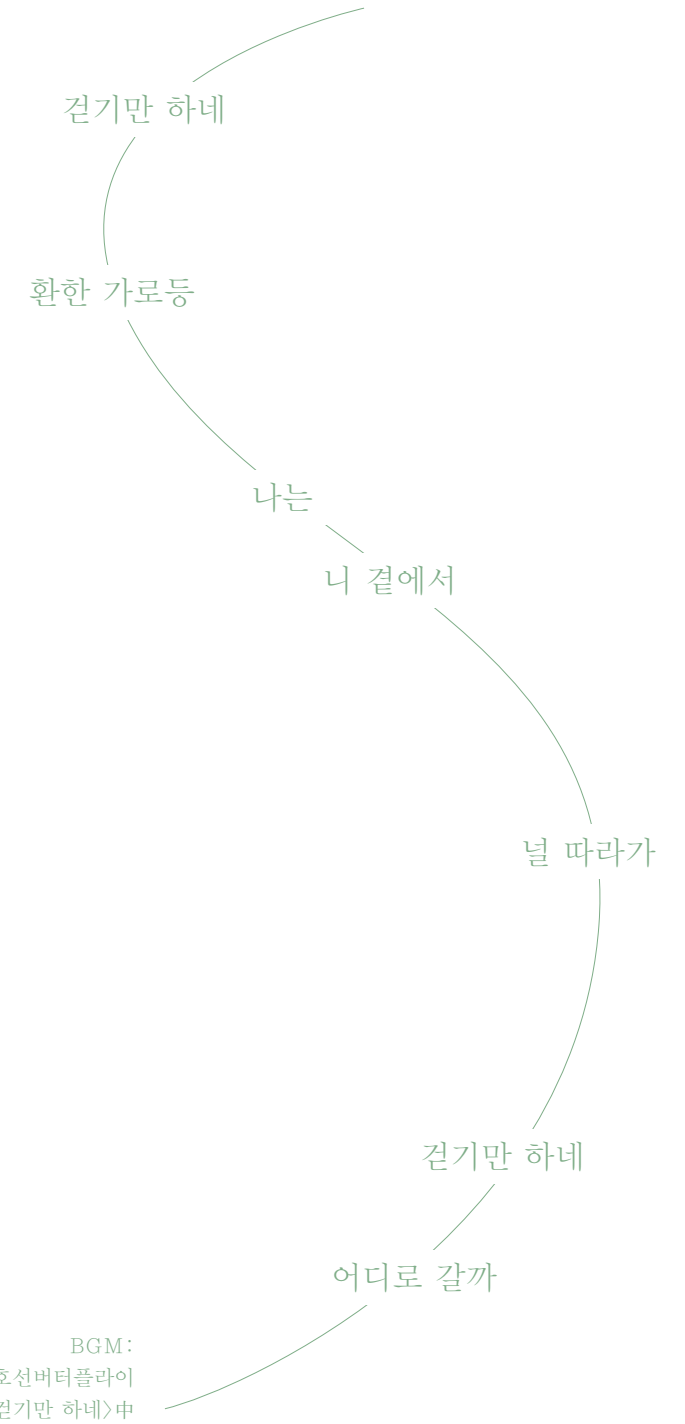
여섯 발자국.

紀伊國屋書店
키노쿠니야 서점

키노쿠니야 서점은 하카타 교통센터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있다. 키노쿠니야 서점은 뉴욕, 싱가포르 등 전 세계 200여 개의 지점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서점이다. 이곳 하카타점은 꽤 넓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책장 사이사이에 책들이 뽁뽁하게 꽂혀있어 책을 찾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마침 “책이라는 미디어의 매력을 널리 알리다”를 모토로 하는 후쿠오카 대표 책 축제 <북쿠오카 2018>이 열리고 있던 참이라 서점은 조금 분주했다. 독서의 나라답게 많은 책과 많은 사람들이 서점을 방문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한장 한장 살펴가며 책을 골랐다. 오늘 여기서 우리와 인연을 맺을 책은 어떤 책이 될까 기대하며.

서점만큼 인간의 심성이
그토록 약해지는 곳이 어디 있는가?

- Henry Ward Beecher(헨리 워드 비처) -



배가 고파질 때쯤 서점을 빠져나왔다.
후쿠오카는 명란이 맛있기로 유명해서
명란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가 많다.
우리는 그중, 텐진에 위치한 <후쿠타로>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소박하고 깔끔한 구성의 기본 명란 정식을 주문했다.
고슬고슬한 밥은 리필도 가능하고 테이블마다
추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명란젓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 이곳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후쿠타로만의
독특한 명란 상품들이 진열/판매되고 있어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눈과 입이 즐거운 곳



| 후쿠타로(福太郎) | 텐진 미나미역(天神南駅) 6번출구 >> 도보 3분





마지막 날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으로 떠나는 일본인 관광객이었다.
그들의 설렌 표정에 텅달아 가슴이 두근거린다.

수고하셨습니다

お疲れ様でした

B E H I N D

비 하 인 드

Behind.1

급하게 정한 여행이라 가려고 했던 호텔들은 모두 Sold Out! 힘겹게 구한 텐진의 어느 호텔은 깨끗하고 친절하며 일본에서 드물게 방도 넓었다. 햇볕이 가득 들어오는 호텔로비와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웰컴 드링크가 마음에 들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작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한 호텔 WBF.



Behind.2

날씨라는 녀석은 참 알수가 없다. 마음에 드는 핫케이크 가게를 발견했지만 더 마음에 드는 카페가 있을지도 모르니 한바퀴만 돌고 그래도 없으면 들어오자! 하며 몇 발자국 옮기자마자 무심하게도 비가 쏟아졌다. 결국 열심히 뛰어 원래 가려고 했던 카페로 들어왔다. 이리나 저리나 맛있게 먹은 애플파이 핫케익!



Behind.3

돌아오는 날 아침. 부랴부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이 능숙한 한국어로 <어디 가세요?>라고 물었다.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나는 일본말로 <공항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렇게 공항까지 작은 대화가 이어졌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리려던 찰나, 기사님은 잠시 우리를 붙잡더니 이 귀여운 부엉이 스트랩을 본인의 가방에서 떼어 건네주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무거운 마음에 이 짧은 행복감이 주는 영향력이란, 담담히 지나가려 했던 후쿠오카의 기억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다.



Behind.4

2019년을 맞이하는 곳은 일루미네이션으로 반짝이는 후쿠오카의 거리 뿐만이 아니었다. 산책 중에 들른 텐진의 미츠코시 백화점 사거리에 있는 LOFT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맞이 돼지 캐릭터 엽서들로 가득했다. 한가지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12간지 막둥이는 돼지가 아니라 멧돼지라는 사실! 그래서인지 신년 엽서와 카드에는 귀여운 멧돼지 캐릭터들로 가득했다. 신년 엽서의 시기가 왔구나... 올해도 한 달 밖에 안남았구나...



福岡
후쿠오카

가
까
이
에
있
다
감
동
은
가
장